

인터뷰 · 김재연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합법화로 신뢰받는 한총련 만들 것”



단지 말만 잘한다는 태도가 더 무섭다.

선거유세에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학생들의 반응은 단연하다. 여태 한총련이 학생들에게 비추는 모습이. 이런 부족한 것부터 결렬하게 반성하고 바뀌 나가겠다.

한총련 의장 출마에 대한 주된 비판은 '학내 의원 수월과정 없이 총학생회장 단독으로 출마결정을 했'다는 절차상의 비민주성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출마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한총련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인정받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전체학생 7천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출마 사실을 알리고 사과를 했다.

일반적으로는 동총련 의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제기 한 것을 장의하기도 전에 한총련 의장에 출마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다. 동총련 의장 출마에서 한총련 의장 출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달라.

동총련 의장선거에서 애초에 대의원들의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애초에 대의원이 아니었던 졸업준비위원회 등이 대의원이 되어 있고 대의원들의 위임장을 다른 학교의 사람이 갖고

있었다. 이런 저런 반발이 있었지만 그대로 투표가 실시되었다. 내가 좀더 큰 목소리로 항의했다고 해서 동총련 의장선거에서 불거진 문제를 나에게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대의원 구성문제는 동총련 뿐만 아니라 서울련 등 한총련전체이 문제이다. 내가 동총련에 있던 한총련에 있던 이 문제는 어디서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한총련의 혁신과 대중성 확보를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능숙한 발이 '합법 한총련'이다. 실현 방안은?

합법화를 통해 한총련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먼저, 한총련의 사업내용과 진행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재정과 회계, 구제적 사업 계획을 공개할 것이다. 또, 논의가 좀처럼 되지 않은 것을 본연의 모습이라 해서 공개를 꺼리지 않고 학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 임시체제로 운영하고 부위원회를 건설하겠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진심을 전하지 못하고 한총련 의장 출마를 미리 밝히지 못해서 죄송스럽다. 이제 나를 믿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권정우 기자 tingyu@hotmail.net

주요공약보기

‘내출마! 합법화 한총련’

백만호 총학생회장 김재연이 간다

- 조국통일위원회를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위원회로 바꿈.
- 학우들의 언어로 글쓰고 말하기, “외장남” 등 과도한 영어 사용 극복
- 회의운영체계 혁신, 상중심 회의 중심 학과, 기동지도 실천활동 중심 운영
- 정보공개요구권, 대표자 소환권 명시
- 학우 조합을 신설
- 공개홈페이지 운영, 주요 정책 공개 의무화, 회계 및 재정 공개 운영
- 전국 과, 학부학생회 교류사업
- 한총련 부문 위원회(기법, 정보통신, 환경, 인권, 언론...) 건설, 주요단위 집중사업
- 한총련 출범식을 전국대학학생총연으로
- 학생운동단체협의회 건설
- 민주노동당 후보 단선을 중심으로 지자체 선거투쟁
- 대학생 정치참여운동, 학내 정치활동 강화
- 한총련 합법화 전국대학대결전
- 전국수배자의 결성, 인권문제 여론화
- 대의원의 정당 공개 투쟁
- TV 및 인터넷 공개토론
- 신규, 재입학 운동
- 공개사무실 개소

사설

뼈아픈 반성의 사과가 먼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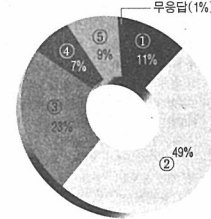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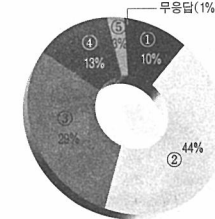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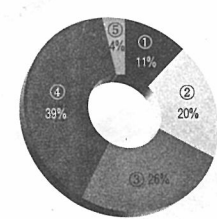
지난 한 주 동안 김재연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의 한총련의장 출마와 관련해 학생회 내부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그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하나다. 한총련 의장 출마 전 의사수월 과정을 생략한 채 단독으로 결정했고, 결정 및 일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출마 사실을 알렸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반대해도 출마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한, 이른바 ‘비민주성’에 대한 지적이다.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학교 행정에 반발하며 최일선에서 싸워왔던 총학생회장의 이번 행동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현과 대중적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 의장출마 선언과 전연배치되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보인다. 지난 2일(화) 서울배움터 학내운영위원회는 과학생회장들의 실명과 한총련의 당국자들로 내내 무거운 분위기였다. 등록금 책정논의와 자기 총장선출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발빠른 행보를 보여야 할 학생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는 이러한 진통을 발전적 해결구현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 본보는 지난 4일(목) 하루동안 서울배움터 전체학생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7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과연 학생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떤 해결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지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다. 설문결과 응답자 중 80%의 학생이 한총련 의장 출마 전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과의 논의체계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우리학교 총학생회장의 출마에 대해서는 54%의 학생이 ‘잘못은 있지만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80%의 학생이 ‘사과하고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압도적으로 출마 반대여론이 높을 것이라는 상당수 학생회 임원들의 예상은 틀렸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왜 출마전선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는가? 그것은 한총련에 대한 무관심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다. 관심이든 무관심이든, 이런 그 무의의 반영이든 우리에게 이번 결과는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한다. 우리는 설문결과와 함께 김 총학생회장이 한총련 의장 출마를 공식선언하며 내세운 몇가지 공약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버스투이, 의장후보 입정공개 등을 비롯해 김경구 전만개, 한총련의장 명칭개정, 학생운동 공동투쟁식 개최, 한총련 합법화, 전국대학대결전 등은 그 동안 한총련에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되는 공약이다. 의장 당선 여부를 떠나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출마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이번 한총련 의장선거 과정이 한총련의 발전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임원들은 학생들에게 ‘그런데의 조치’로 인식되고 있는 한총련을 어떻게 학생들의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김 총학생회장에게 면죄부는 될 수 없다. 40%의 학생들이 ‘사퇴’ 혹은 ‘불신임’을 해결방안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김 총학생회장은 의례적인 사과가 아닌 뼈아픈 반성의 사과를 해야한다.

긴급 설문조사 - 한총련의장 선거 “출마해라” 60%, “안된다” 30%

본보에서는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에 출마와 관련해 지난 4일(목) 서울배움터 학부생 7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결과 김재연(서양·노어 99) 총학생회장이 한총련 의장에 출마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64%인 478명이었다. 모르고 있던 사람은 30%인 271명이었다. 또한 총학생회장이 의사수월과정(학생회 대표자들을 비롯해 전체 학생들과의 논의 및 협의)없이 한총련의장에 출마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299명(40%), 모르고 있던 사람이 448명(60%)이었다.

일반적으로 총학생회장이 한총련 의장에 출마하기 위한 절차



1. 일반적으로, 총학생회장이 한총련에 출마하기 위한 절차

1. 총학생회장 자신의 판단과결심 : 86명
2. 출마전 대자나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고 : 148명
3. 대의체계를 통한 합의 후 출마 : 192명
4. 대의체계를 통한 합의 + 전체 학생들과 공개토론회 · 간담회 : 293명
5. 기타 : 28명

2. 우리학교 총학생회장이 의사수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총련 의장에 출마한 것에 대한 의견

1. 문제없다 : 72명
2. 의사수월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총학생회장의 판단과 결심은 인정해야 한다 : 331명
3. 의사수월과정 없이 출마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 214명
4. 중대한 잘못이므로 총학생회장으로서 신임할 수 없다 : 99명
5. 기타 : 25명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어떤 해결방안을 채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1. 전학대회 결정내용과 상관없이 총학생회장의 판단과 결심은 존중 : 85명
2. 의사수월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학생들 앞에 공개사과하되 한총련 의장은 출마 : 361명
3. 한총련 의장 출마를 사퇴하고 학생들 앞에 공개사과 : 169명
4. 중대한 잘못이므로 총학생회장 불신임 : 55명
5. 기타 : 70명

START~

등록금 조정위원회...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학내, 20%로 조~음

부담한 등록금 인상은 안됩니다!!

저같은 회의중

PLAY...

비상학생회의 총과입

단식작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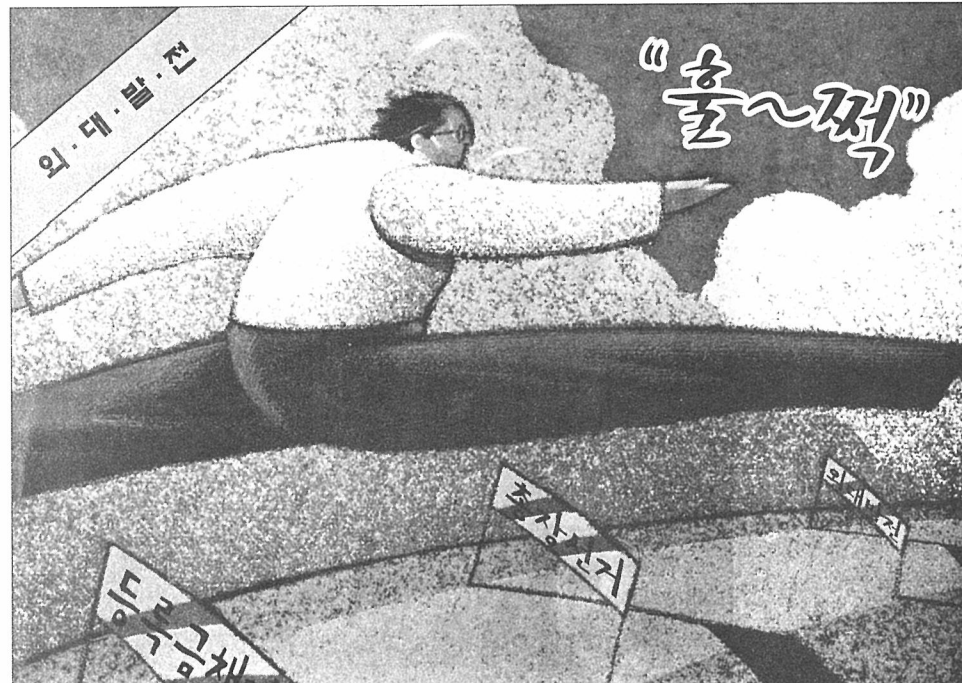
등록금합의결

6.8% 인상

그런데...

우대장장이 비파악은 아니요!!

REPLAY!!



외대발전을 향해 뛰어갑시다.

등록금정책, 총장선거...



우리 모두의 힘으로 넘어갑시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4.5

2002년 4월 8일 803호

주제 기획

차기 총장선출 관련 각 단체 입장



송경숙 (교수협회장)

교수협의회 : 총장선출은 작년 8월과 올해 2월, 두 번에 걸친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초정토론회에 교협의 총장선출 선거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직원노조의 참여가 가능하다.



심재영 (노동조합장)

직원노조 : 총장선출시 학원 3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옳다. 교수협의회의 측에서 학원 3주체와 함께 할 의사가 없어 직원들도 총장후보 선출위원회를 만들어 이사회 측에 후보 2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김제연 (서울 총학생회장)

서울 총학 : 총장은 단지 교수들만의 대표가 아니라 학내 전 구성원의 대표이므로 차기 총장선출과정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윤상필 (용인 총학생회장)

용인 총학 : 총장 선출에 학생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며 김재중전회 등 세력파들에 휘말리지 않는 검증된 사람이 총장이 되어야 한다. 어떤 형태든지 얼마만큼 학생의 소리를 들으려 하는지가 중요하다.

차기 총장선거 관련 해내 3주체 설문조사

학생·직원 “다같이”, 교수 “우리만”

차기 총장 선출방식과 관련 학생과 직원의 의견이 유사한 반면 두 구성원과 교수와의 시각차는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목) 본보가 학생 185명(서울배움터 88명·용인배움터 97명), 교수 29명, 직원 49명 등 263명의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직원의 70%(학생 61%, 직원 79%)가 차기 총장 선출방식에 대해 '학생, 교수, 직원 모두가(총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수들은 해내 3주체 모두가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선출방식에 교수 선출하는 방식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82%(나노 82%, 학생 59%, 직원 79%)의 생각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생, 교수, 직원 모두가(총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153명의 학내구성원 가운데 39%(3주체가 동일한 비율(1:1:1)로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전원 참여'(29%), '재직인원비율(인원수만큼 대표들을 선출해 참여)'(18%)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구성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기 총장은 어떤 인물이 선출되어야 하는가'란 질문에는 민주적 의사수렴 체계 확립을 통해 학교 발전을 도모하는 인물이 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58%)이 '최고경영자(CEO) 형태로 기업식 운영을 통해 학교발전을 도모하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28%)보다 훨씬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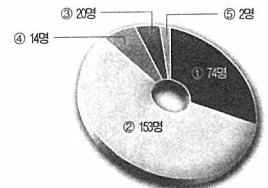
7%가 구제단체를 축출을 통한 학교운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인물이 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기타의견으로 '외대의 정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특화발전의 역할이 있는 인물이 선출해야 한다', '정통성이 있는 인물이 선출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특히 차기 총장의 상에 관한 설문에 대해 교수들은 절반정도인 42%가 민주적 의사수렴 체계 확립을 통해 학교발전을 도모하는 인물이 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답해 민주적 과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차기 총장 선출에는 교수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82%를 차지해 이채를 띠었다.

양창모 기자
hufshan@hot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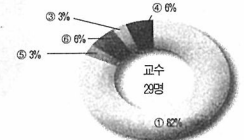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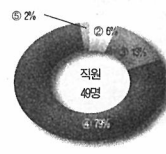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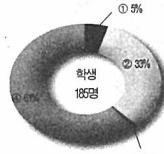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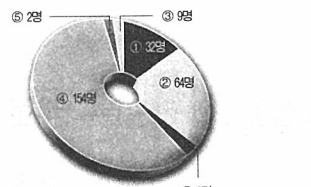
1. 차기 총장은 어떤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최고경영자(CEO) 형태로 기업식 운영을 통해 학교 발전을 도모하는 총장 (28%)
- ② 민주적 의사수렴 체계 확립을 통해 학교 발전을 도모하는 총장 (58%)
- ③ 구제단체를 축출을 통한 학교운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총장 (7%)
- ④ 기타 (3%)
- ⑤ 무응답 (2%)



2. 차기 총장 선출방식은 어떤 형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수가 선출(현재 선출방식) (12%)
- ② 교수, 학생이 선출 (23%)
- ③ 교수, 직원이 선출 (3%)
- ④ 교수, 학생, 직원이 선출 (58%)
- ⑤ 기타 (2%)
- ⑥ 무응답 (2%)



3. 교수, 학생, 직원이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그 참여비율은 어떻게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원 참여 (28%)
- ② 재직인원 비율만큼(인원수만큼) 대표들을 선출해 참여 (18%)
- ③ 동일한 비율(1:1:1)로 참여 (39%)
- ④ 교수·학생·직원 참여비율을 2:1:1로 참여 (9%)
- ⑤ 기타 (8%)



F-X 사일배대

기준은 ‘미국’으로 통한다!



1. F-X사업

5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차세대전투기(F-X)사업이 사실은 미국의 무기장 개발력 때문이라? 다시 북을 자극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무기 구매는 다시 냉전을 바라는 미국의 외교에 이용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건지~



2. F-15K 단종

30년 후엔 단종되는 전투기를 구입한다면서? 전투기는 나사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무용지물이라는데... 해도 너무 하는군! 우리가 미국의 패용치리국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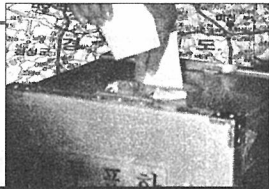
3. 외압 의혹

공군사령관이다 조주형 대령(공사 23기)의 양심선언 내용. "국방부가 F-X사업기종을 F-15K로 선택하려는 것은 차세대전투기(F-X) 기종 선정과 결부해서 미국이 지·간접적으로 북에군인 통에게 요청했고, 이에 일부 군수외부가 동조해 일어난 일이다."



4. 배정방식 변경의혹

1차 평가에서 2위를 한 미국 보잉사의 F-15K가 사실상 F-X사업기종으로 결정했다면서? 2차 평가방법은 한·미 군사관계 등 정책적 고려가 최우선시 돼 F-15K가 선택될게 확실. 이거야 말로 '짜고 치는 고도리' 아냐?



총장의 민주적 선출 → 최선의 결과 도출

■ 기고 - 교수직선제 폐해 줄이는 새로운 민주적제도 모색해야



백수인 (조선대 교수·민교협 공동의장)

이렇게 임명된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 위에 권위적으로 군림하여 재량적 권력을 휘두르기 일쑤였다. 더욱이 임명 총장은 정부(혹은 정치권)나 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교수나 직원들을 강압하는 일이 허다했다. 그러던 중 19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선회하면서 대학 민주화 제도의 하나로 총장 직선제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관직의 높에서 벗어나 대학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대학인의 열원이 성취된 것이다.

6월 항쟁 후 직선제 실시 대학 민주화의 꿈 실현

대학에서 총장을 선출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총장은 대학의 대표로서 대학의 교육, 행정, 재정 등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총장이 되느냐에 따라 그 대학의 흥망성쇠와 명운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가진 총장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는 그동안 대학 구성원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의 대학 총장 직선제는 이전의 임명제에 대한 폐단을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거의 모든 대학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다. 그 이전에는 국립 대학은 정부에서, 사립 대학은 재단에서 총장을 임명해 왔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에서는 1988년 이래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직접 선거로 총장을 뽑았다. 조선대의 총장 선거는 교수회의,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원회가 참여하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에서 주관해 오고 있다. 조선대에서의 총장 직선제는 교수와 직원들의 권리 신장, 학생 활동의 자율성 신장,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대학의 민주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폐단 또한 만만치 않다. 과열 선거 운동으로 인한 과도한 선거 비용 지출, 교수들의 연구 시간 해비, 소모적 경쟁과 학연·지연에 따른 편가르기, 선거운동 과정의 논공행상에 의한 보직 약속과 임명, 총장 지도력의 약화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조선대에서 총장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된 것은 교수들만의 선거로 총장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과 어떤 형태로든 직원, 학생, 동문 등 다른 구성원들도 총장 선출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이었다. 이 주장은 교수집단 이외의 각 구성원들에게는 상징적으로 투표권을 주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실제로 지난 99년 이루어진 조선대 11대 총장 선거에서는 학생에게 36표, 직원에게 51표의 투표권이 부여됐다. 직원들은 투표에 참여했으나, 학생들은 투표에는 참여하되 기표는 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수들의 결정을 존중했다. 또한 후보자의 답합 등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폐지하고 종다수로 바꾸었다. 이처럼 조선대에서는 매번 총장 선출제도와 그 운영 방식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총장 선거의 폐해와 후유증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심화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폐해는 제도의 운용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대학 구성원들의 민주 의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조선대에서는 지난 선거를 앞두고 총장 직선제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다른 방식을 모색하자는 교수들의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기도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동안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해 온 다른 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판단된다. 우리 대학 사회에서 그동안 경험해 온 두 가지의 총장 선출 제도, 즉 임명제와 직선제의 폐단을 모르는 대학인은 아

마 없을 것이다. 지성인으로 구성된 대학 사회에서 이러한 총장선출을 둘러싼 폐해를 경감하고 이를 그대로 방기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대학 사회는 이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제게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는 구성원들의 민주적 토론 절차를 거쳐 각 대학의 환경과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경험에 많은 다른 나라 대학들의 사례들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 드러난 장점을 우리 나라 대학의 실정에 맞도록 바꾸어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모든 구성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총장은 대학의 구성 주체 중에서 어느 한 주체를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모든 구성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구성 주체들은 자신들의 이해 관계, 권위주의적 사고 등을 과감히 버리고 대승적 자세로 총장 선출의 방식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과정이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중요한 것은 건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 제도에 의지하지 말고 부단히 노력해야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인들은 불합리의 폐해, 그리고 비민주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하게 모색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의 총장선출 방식은?

구분	간선제·임명제	입후보후 선출	직선제 교직원 선출	학생·행정직 참여 선출
선출주체	이사회	교수	교수	교수+학생+직원
선출방식	이사회 임명	최다표득자 선출	최종 2인선출 후 이사진 결정	교수+학생+직원
최종승인	이사회	교수회 또는 이사회	이사회	자동승인 또는 이사회
문제점	· 비민주적 파벌형성 우려, 전횡과 부정부패가능 · 다당적 의견변경 불세	· 선거과정 유류증 · 총장선거의 정치화	· 유령세에 따른 총장선출 · 소신있는 후보 제한가능	· 요석행위에 그칠 가능성 높음 · 후보자에 대한 인식부족 우려

우리학교의 총장선출 방식은 학내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의(교협)의 선거를 통해 두 명의 후보자를 선출, 이 후보자들 사이에서 상정된 이사진에서 총장을 임명하는 '교협식 선출 방식'에 가깝다. 이런 '교협식 선출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입후보 후 선출 방식의 폐단인 선거 과열현상과 총장선거의 정치화 문제를 보완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대학 내 보직교수 등 특히 알려진 인물들이 총장이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가진 교수가 총장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후보를 선정하는 교협은 아직 밖으로서는 인정되지 않은 일의기구로서 이사진에 올려진 두 명의 후보 중 교협 내 선거에서 최다표를 차지한 후보 대신 다른 후보가 총장에 임명되더라도 집행력이나 집행력은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동현 기자 bpress@korea.com

■ 사례 살펴보기 : 조선대학교의 민주적 총장선출 방식

조선대학교는 99년 11대 총장 선거에서 전국의 모든 대학 중 최초로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전임감사 이상의 교수회의에 직원·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의 운영위원회에 투표권을 부여하는(직원 51표, 학생 36표) '놀라운 시도'를 한 것이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선대학교의 총장선출방식은 전국대학 중 유일무이한 선택이다.

99년, 조선대학교는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황이었다. 교수인용과 관련된 비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파벌싸움이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조선대의 공립화·국립화 주장이 나오면서 자칫하면 대학이 사라질수도 있던 총재직 내국이었다.

하지만 조선대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대자협에게 자력선거 등 선거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학생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에 투표권까지 주는 등 위상을 높여 대학의 현주소를

명확히 전하고 대학의 발전에 대한 바람직한 총장선출을 마련하는데 모든 구성원의 충지를 모아야 한다는 원칙을 과감히 수용한 것이다. 비록 선거과정 등 직선제로 인한 폐해와 자력선거의 공정성 논란 등 한계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총장이되는 인식으로 인해 그때까지의 각종 비리와 부패로 인한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대학이 다시 개성으로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학운영과 관련해 사실상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학 총장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인물을 선출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99년 9월 조선대 학보 '조선대신문'의 총장 직선제를 요구한 이 구월이 3년이 지난 2002년, 차기 총장을 선출하게 되는 임시이사회체제의 우리학교에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mmail.net

■ 각 대학별 총장 후보자 추천 방식

대학명	고려대	성신여대	광운대	서울대	한성대	홍익대	중앙대	아주대	연세대	상지대	조선대
추천위원회 구성	교수, 직원, 학생 참여	교수 28, 직원 7, 학생 7, 동문 7	교수 5, 직원 2, 학생 1, 법인이사 1, 동문 1, 사회인사 2	법인 1, 교수 3, 직원 2	교수 8, 직원 2, 학생 2, 동문 1, 사회인사 2	교수 18, 직원 5, 학생 3	교수, 직원 별도 투표	인) 교수 7, 직원 2, 학부모 1, 동문 1	교수 15, 직원 4, 동문, 사회인사 - 총 30	교수 7, 직원 1, 학생 2, 동문 1	전임감사 이상 교수 + 대자협 운영위원 (직원 51, 학생 36)
선출방법		2명 추천 - 이사회 임명			3명 추천 - 이사회 임명	3명~5명 추천 - 이사회 임명	· 후보 선전위 등록 · 선거유세(합동 등) · 각 2인 추천 · 이사회 임명		4명 추천 - 이사회 임명	· 교수회의에서 다수 후보 선정 · 추천된 투표 (민중일치) · 이사회 임명	

고려대, 한성대, LG와 함께 with LG

가슴가득, 세상을 담고 돌아오라!

더 넓고 더 큰 꿈을 꾸는 젊은이들을 기대합니다

LG Global Challenger 2002 모집

1. 응모분야 : 자연과학/사회/교육/문학/예술/경제/기타
2. 응모자격 : 전라북도 대학원 재학생
3. 참가대상 : 199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2002년 2월 28일 현재 만 21세 이하인 학생
4. 응모기간 : 2002년 4월 29일까지
5. 선발인원 : 90명(30명 한팀×30팀, 동양대교 학생으로 구성, 전라북도 학생)
6. 응모기간 : 2002년 4월 29일까지
7.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1인당 1장), 참가신청서(1인당 1장), 참가신청서(1인당 1장), 참가신청서(1인당 1장)
8. 참가서류 : 참가신청서(1인당 1장), 참가신청서(1인당 1장), 참가신청서(1인당 1장), 참가신청서(1인당 1장)
9. 참가서류 : 참가신청서(1인당 1장), 참가신청서(1인당 1장), 참가신청서(1인당 1장), 참가신청서(1인당 1장)
10. 참가서류 : 참가신청서(1인당 1장), 참가신청서(1인당 1장), 참가신청서(1인당 1장), 참가신청서(1인당 1장)

별인사 - 작가 조정래

“대하소설이 안 팔린다고?... 조정래를 통해 확인해라”

한강을 원했다. 이에 대한 소감은?
한강의 원고지 1만5천장 마지막에
“글” 자를 쓰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다 마쳤는가 하는 세상스러운 감정에
합당이나 빠졌었다.

한강에는 수 십 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큰 줄기로는 남북평화 관련
어떻게 이용했는가, 이런 상황에서 경
제정안은 어떻게 해서 이뤄졌는가하는
문제다. 경제정안은 박정희의 공이 아닌
하루 14시간의 혹독한 노예 노동을 참
아내던 19살짜리 소녀들의 숨은 노력이
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그 외 부경
의 부리를 파헤치는 일, 친일파의 문제
가 오늘의 사회를 어떻게 영향으로 만
들었는가 등 찬 줄기가 복잡하다. 이
소설이 나가면서 3월 1일 공식작으로
국회에서 친일파 문제를 발표했는데
김민환, 백낙천, 고광성, 이숙중, 배성명
등 교육계가 친일파가 너무 많이 포진
되어 있었다. 이어서가 어찌 한국의 교
육계가 제대로 되는가?

한강에서 화평책 '백대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농담으로, 한강 완결 후 두 명의 스타
가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조정래'와
'백대준'이다.

천민을 먼저 못하는 한국의 자본주의
이지만, 자본주의가 균형적으로 발전하
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다. 물론 서독으로 파견
된 공부, 간수, 버스 안내원, 장제선
피해자들의 노동자 등 민중들의 노력이
로 인해 경제정안을 이룩한 중화항공
업의 발은 '고도성장'의 원인이 됐다.
이 과정의 중심에 쏠려 있어 아 박
태준이 있다. 자료수집을 위해 실종 취
재하는 과정에서 박태준은 사유재산이
전혀 없고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인 것
으로 드러났다. 작가의 명예와 내 책이
만 한 건가라는 진지 하에 박태준에 대한
평가를 한 점 부끄러워하는 편이다.

대하소설을 고집하는 이유는?
20세기 관동에는 한국의 역사는 지난

하고 고통스러웠다. 혹독한 일본의 식
민지 정책으로 약 400만 만 명이 죽었
는데 역사학자의 직무유기로 인해 이
숫자는 책에 안나온다. 어디 그뿐인가?
해방이후 8년의 역사는 남북정권이 왜
곡사이고 굴절해 '배우논의' 역사가 되
어갔다.

내가 이리함을 쓰면서 2002학 원고
지 2만장 분량의 4백만 글자를 쓰면서
그 글자 한자가 우리 동포의 죽을
과 같다는 각오로 원고지를 채워나갔
다.

이러한 우리에 역사를 제대로 들려주
고있는 거대한 산맥이라서 단편으로 쓰
면 한 글자만 호미로 파는 꼴이고, 중
단편이든 장편이든 관련 경우라,
총체적으로 쓰지나 대하소설이 필요하
다.

“지구세바퀴 반을 돌았다”

32년의 대하소설, 자료수집에서 만만치 않
았을 텐데.

관련된 모든 인재를 숙독이 우선이다.
기록은 한계가 있기에 '현장취재'가 필
수적이다. 수 만리 바깥으로 반드시 나
다. 여기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상
단계를 이르면 비로소 한 편의 소설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모자라면 또 간다.
중국은 세 번, 러시아는 두 번 갔다. 그
래서 이리함을 지구 세 바퀴 반을 도는
남의 취재정황을 누웠고 한강 집필
전에는 그 추운 겨울 동국대학교 도서
관에서 2달을 꼬박 매일 출근하느라 피
해 필요한 것은 모두 매료였다. 수십
권의 노트 모이는데 이런 노력이 없
다면 남을 감동시킬 수 없다. 모든 사
담들은 먹고사는 생업에 매달려야 분단
이니 정치니 하는 의식들이 지쳐있고
내태웠다. 문학은 내태우고 집필 영
혼들에게 줄이 위에 바야는 문자를 통
해 이 영혼들을 깨우고 감동을 주는 거
다.

이를 위해 나는 세상과 절연해야 했
고, 몇 가지 작업방을 얻고, 아버지 일
종도 못 가지고, 홀로있는 어머니가 지
원하에 두 번밖에 못보고 그랬다. 현재

문학도들은 이문열과 조정래가 자신들
의 화합이라고 하는데 작가란 삼천도의
물에 들어가고도 알지 않고 삼천도의 불
에 들어가고도 녹지 않을 정도의 정신을
가져야 해, 그렇지 않으면 문학 못 한
다.

태백산맥을 보면 민족 구이질감이 나타난다.
통일을 앞둔 지금 남북 이질감 해소 가능할
것 같은가?

대체로 중요한 지적이다. 태백산맥에
나타나 있는 남북민족 출신의 갈등은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는 모습이다. 그
래서 민족의 통일성과는 별개로 봐야하
는 대목이다.

현재 통일의 문제가 있어 분명 이질
감이 존재한다. 남북체제 나뉘는 소
련식, 미국식 문화가 도입되었는 것이
실정이다. 북측은 외래를 자국어로 바
꾸어 쓸려고 노력해왔는데 (북명자, 얼
음보숭이, 손가락 등) 민족적인 입장에
서 볼 때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우리는 무조건 미국식인
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미국문화를 수
용한다는 지적받지 않아 북측을 보고
흔소한다고 킁킁 웃는 듯하다. 이는 사
대주의 발상이다. 우리말이 있는데 외
국말을 쓰는 것은 곤란한 거 아닌가?

김영삼 장관을 거역하면서 세계화한 미명
의 물결에 휩쓸려서 이제 일이 빠
져버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 온통 외래에 간판뿐이다.
대한민국에 지식이란 있는 것이 아예
없다.

“미리암”을 왜 제목으로 삼았나?

소설 이리함에서 '미리암' 노래가 끝
없이 배경음악으로 흐른다. 미리암은
슬픔과 괴로움을 사이는 민족의 비극이
담긴 노래다. 일제시대 정신대로 끌려
간 처녀도, 장동 끌려간 남장도 모두
부른 노래가 미리암이다. 흔히 일제시
대 애곡이라고 불리는데 80년 중반 학
생운동이 격렬히 일어날 때 연세대 전
국대학생 축제 모임에서 32명의 학생
들에게 통일 후 국호를 묻는 투표에

'미리암'이 선정됐다. 미리암은 민족사
적인 영혼을 담고 혼란 정도의 깊은 의
미가 있다.

민족적 색채가 강한 대하소설을 주로 써왔
는데, 문학은 순수성을 지향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설은 인식을 달리하고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나는 소설이
단순 재미나 흥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한다. 만년의 생명을 유지하는
문학이 남겨져 후대까지 이어지기 위하
는 그 속에 진실과 진정성,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역사적 아름다움이 내재해 있어야한다.
이것이 나의 문학의식이자 작가의식이
다.

역사와 민족 등 두루는 소재를 보면 북한문학
과 비슷해 보이는데 북한 문학에 대한 견해는?

접할 기회가 없어 읽어보지는 않았다.
80년대를 지나면서 '피리나' '꽃' 파는
책이 점점 줄었다.

북한 문학의 체제가 복무하는 거다.
이는 비판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 비
판이 없이는 것은 문헌이라고 할 수 없
다. 그쪽 체제라고 모순이나 갈등이 없
을 수 있나? 비판을 못하게 하니 문학
정신이란 있을 수 없다. 내가 태백산맥
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남북체제가 훨씬
우월하다는 반증이다. 물론 내가 고발
당하기는 했지만 아직 감옥까지 않았으
니까.(태백산맥으로 그는 지금 '국가보
안법'에 연루 중이다) 내가 북측에서
작가생활을 했더라도 감옥으로 갔을 거
다.

진정한 작가의 그 어느 시대, 어느 정
권과 불화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
실을 싸이하기 때문이다.

“80년대 학생들이 투쟁한다고
못하던 공부불?”

대학생들의 정치투쟁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
고 있나?

80년대 들어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지
않아 걱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역사

인식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사고다.
80년대 엄청난 투쟁의 결과물로 인해
지금의 대학생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물론 몇몇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
는 하지만... 이제 노동자의 문제는 노
동자가 해결해야지 대학생이 다 알아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만약 80년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학생들은 다시
일어나라라고 본다. 역사란 순환하고
계속되는 유전인자이기 때문이다. 대신
90년대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80년대 학생들이 투쟁한다고 못하던 공
부를 감수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한다.
나는 오늘의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확고
부동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 대
한 비판의 견해는 짧은 생각이다.

현재 대학 도서관 대출 1위는 대하소설이나
사회·인문학책이 아닌 판타지 거 대
수다. 이에 대한 의견은?

90년대 이리함을 시작해 55년 미군할
조를, 당시 한국사회 소설은 미대율로
기를 팔리던 쪽으로 가파르게 접어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리함이 팔릴
것인지 고심을 했고 심지어는 출판사
장에도 엄청난 고민을 했었다. 하지만 아
리함은 100만 부 넘게 팔렸다. 한강도
발간 4개월만에 100만 부가 팔린 넘었
다. 이리함보다 세 배, 태백산맥보다 10배
잘 팔린 경우다. 왜 그럴까? 대한민국
의 4천7백 명 중 깨어있는 영혼이 몇
십 만은 있다고 확신한다. 시대가 변했
다는 등 이제 시시콜콜한 소재가 인기
라는 등 하는 소리는 세상을 표피적으
로 판단하고 세상에 어부지름 하는 자
들이 자아 만든 소리다. 자기의 굳건한
이념으로 진실하게만 쓰면 독자는 항상
있다는 것을 조정래를 통해 확인해라.
작가들이 독자를 너무 보면 안 된
다.

이제는 작가가 작품을 내고 나서 전국
의 대학생들이 와서 이런 집단연구
회를 하겠는가? 조정래에게 얻을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전대기인 공동기자인



조정래는 누구?

전남 송주군 선암사에서 출생
광주 서중학교와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거쳐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1970년(현대문학)추진으로 등단.

단편집 [아련의 땅] 20년을 버기 내리는 땅 [영도] [그들의 자리].
중편집 [유형의 땅], 장편소설 [대륙의 불꽃],
대하소설 [백대준] [미리암] 출간.

<현대문학> <대한민국문학> <성육신>
<동국문학> <소설문학> <단편문학> <노년문학>

하숙 보고서 - 하숙의 세가지 모습

주인따라 천·차·만·별

표준 상황

1차에 1

■최정호(서양·불어 01)

하숙한지 1년 됐음. 친구와 22살 3인원.

불만사항-따들지 못함. 친구들 데려올 때 눈치 보임. 한 번은
친구 같이 놀러와서 같이 사는 사람과 주인(주머니)에게 욕
먹어 아랑어 씨들 때 사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있음.

좋은 점-룸만 가만 가면. 빨래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
음.

밥-밥 못 먹을 때 돈 아깝다는 생각. 밥을 먹는 시간(하루
두 번)이랑 8-9시, 저녁 6-7시

비리는 점

-학교: 기숙사 있었으면 좋겠음.

-아동: 밥을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먹었으면 좋겠음.

1차에 2

■하니은(서양·스페인어 02)

하숙한지 한달, 친구와 같이 살. 6인원

좋은 점-생활 제일이 없는 것이 자유롭고 모임·동아리 활
동에 제약이 없음.

불만-방안이 맞았지만 한 번은 항상 같은 거다. 여태
껏 고기 3번 먹어 봤고 그나마 부실했음.

많은 사람이 같이 살다 보니가 아예 화장실문제고 고생하
서 지각한 적이 있음.

서러를 때-스케이트 타고 다쳐서 주인 아주머니께 약 달라
고 하니 주면서 나에게 '국수'를 주었다고 해서 서러했음.

최상 상황

1차에 3

■김정남(서양·독일어 02)

하숙한지 한 달, 독방 4인원.

좋은 점-아주머니가 빨래까지 해 주시고 밥, 반찬도 맛있고
해서 별 불만 없음.

화장실 시설도 좋고 모여서 텔레비전도 볼 수 있음. 빨래방
도 있음.

밥-아침에 밥 먹으라고 깨워주고 또, 안 먹으면 먹으라고
재촉도 함. 오후엔만 수면이 있을 때는 점심도 중.

다들 어머니처럼 잘 대해 줘. 처음 들어갈 때는 다른 사

람들과 잘 지내라고 잔치도 해 줌. 전기세 물세에기는 한 번
도 하지 않았음.

최악 상황

1차에 4

■유민경(동양·태국어 02) - 하숙한지 두 달, 독방 4인원

불만사항-시설이 나빠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임. 수도배
관이 방 옆을 지나서 위층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다 들림. 들어
올 때는 경수기도 있다고 했지만 실상 들어와보니 생수용 사
머리아 함.

수도에 물 절약장치를 해서 물이 잘 안 나온. 주인 아주씨
가 세탁기 문을 열어 보곤 함.

전기세-물세 얘기도 많이 함. 요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음.
더 불만-어느 날 화장실을 가는 중 주인(아주머니)이 방 문을
열어 보기도 했음.

밥-밥 안 먹으면 오히려 좋아함.
그 밖-온통 불만임. 나오고 싶음.

권정주 기자 tingyu@hanmail.net



유머 - 자취생 3년

초급: 6개월 - 1년
중급: 1년 - 2년 반
고급: 2년 반 이상

도둑이 들어왔는데

초급: 도둑이 들어올까 항상
겁난다.

중급: 주변에서 도둑맞았다는
사실에 혹시나, 살마...란 의문을
 품고 만다.

고급: 스스로 깨닫는다.
이 방에서 도둑이 훔쳐갈 것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을...

열쇠를 만들었는데

초급: 열쇠를 항상 가지고 다
난다.

중급: 열쇠를 특정할 곳에 놔
두고 다난다.

고급: 열쇠를 자주 잃어버린다.
하지만 가스 파이프 타고 올라가
기, 담타기 등 도둑이 얼마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가를 아는데
형 수가 된다.

김치를 먹기 위해

초급: 항상 냉장고에 넣어
둬둔다.

중급: 아무리 오래된 김치라도
먹을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

고급: 김치국물을 가지고 퍼터
지는 전염을 한다.

식당에 가면

초급: 세끼 밥을 먹는다. 별로
어색하지 않다.

중급: 오랜만에 먹는 인간다운
음식이라고 감지한다.

고급: 종종 크게 맛있었다 감
탄사를 남기 식당 아주머니를
감격 시킨후 김치 싸들고 간다. 그
후 단말이 된다. 유뉴스 참조

넌 어디 빠져있니?

동아리? 전공공부? 연애? 무엇이든 좋습니다.
편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젊음의, 대학인의 특권이며
편가 빠지 있는 당신의 모습은 그 열정만으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아직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했나요?
세상 사람들을 두루 만날 수 있는 곳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힐 수 있는 곳
그 속에서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곳
의대학보에 빠지세요.

미래의 경쟁력 있는 당신을 위한 자리 아직 남아있습니다

**외대학보사
수습기자 추가모집**

- 모집: 대학, 사회, 문화, 사전, 인화, 인터넷, 광고
- 장소: 학생회관 2층
- 문의: 02-961-4152/031-330-4112
oedepress@hanmail.net